



해운 비구의 가르침

덕은 비구로부터 납작 해문(海門)이란 나라의 해운(海運) 비구를 찾아가 보살행을 몸으라는 가르침을 듣고, 선재동자는 그를 찾아가다. 선재동자가 그에게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하는지를 묻자, 해운비구는 먼저 선재동자가 보리심을 일으킨 것을 칭찬하면서, 보리심을 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한다. 그런 후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릴 수 없는 갖가지 마니보배는 장엄이 끝이 없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었다. 이렇게 큰 연꽃은 여래가 출세하시는 착한 뿌리에서 일어났으므로 모든 보살이 믿고 좋아하며, 사방세계에 모두 나타나는데 부처님들의 깊고 깊은 경계를 따르는 것이

도의 사된 이론을 꺾어 부수고 모든 마(魔)의 군중을 멸하여 중생들을 기쁘게 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을 비추고 모든 중생의 근성을 분명히 알아 중생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그 부처님 계신 데서 1천2백년 동안 이 보안법문을 받아 지니고, 날마다 들어 지니며 다라니광명으로 수없는 풀을 해석하였느니라. 어떤 중생이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법문을 열어 보이고 해석하고 신앙하고 찬탄하여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며 이 부처님들의 보살행 광명인 보안법문에 들어가 편안히 머물게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안법문만을 안다.

해운 비구의 가르침은 큰 바다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큰 바다는 실로 광

정한 지혜의 바다를 보게 된 것이다. 해운 비구는 사바세계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정도(淨土)를 발견한 것이다.

바다에서 연꽃이 솟아나고 그 연꽃 위에 아름답게 장엄된 온갖 보배는 중생의 무명과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경계가 대지혜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혜로운 행을 실천하는 공덕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의 경문(經文)에서도, “이 커다란 연꽃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시는 선근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설하고 있다. 진실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보살의 만행(萬行)은 생사의 바다에 떠있으면서도 항상 온갖 고통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꽃피워내게 한다.

해운 비구는 생사의 바다에서 정도만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연꽃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께서 보안법문을 설하여 여래의 경계를 열어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수지하여 사람들에게 거기에 들어가 편안히 머물도록 한다.

일체의 세계는 인연에 의해 성립하는 법계(法界)로서 항상 진실된 법이 설해지는 곳이다. 보안법문은 모든 법의 연기(緣起)를 두루 널리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안법문을 통해 본다면, 부처님의 큰 자비의 바다와 보현행의 그치지 않는 원해(願海)와 가없는 법문의 바다가 모두 일체중생의 생사의 12연기 바다에 존재하면서 생겨난다는 것을 관하게 된다.

해운비구의 보안법문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 부처님이 끊임없이 자재하게 활동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인생을 끊임없는 생멸변화의 바다에 비유

사바 세계에서 장엄한 정도의 존재 발견

며, 수없는 백천겁 동안에 그 공덕을 칭찬하여도 다할 수 없느니라.

내가 보니 그때 연꽃 위에 여래가 가부좌로 앉으셨는데 여래께서 오른손을 펴서 내 정수리를 만지시고 나에게 보안법문(普眼法門)을 연설해 주셨다. 모든 여래의 경계를 열어 보이며 모든 보살의 행을 드러내며 모든 부처의 묘한 법을 열어 밝히니 모든 법문이 다 그 가운데 들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모든 의

대무변하고 변화무쌍하며 불가사의하다. 해운 비구는 이러한 바다를 인생에 비유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 비구가 해문이라는 나라에 머문 지 12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12인연의 생사의 바다를 여의지 않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는 바다를 생각하며, 그 속에서 커다란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것을 본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생사(生死)의 바다를 관해서 청



인간은 몸·마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인간을 오로지 몸으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몸은 다시 장기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는 조직으로, 조직은 세포로, 세포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태아를 명(名)이란 의식체와 색(色)이란 몸이 합쳐서 시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인간은 오온(五蘊)이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을 말하는 것으로, 색은 몸을 뜻하며 수, 상, 행, 식은 의식 작용을 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 역시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인간은 몸과 마음이란 별개의 것이 서로 합쳐진 것인지 살펴보

6개월 후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기도치료를 받은 그룹에서는 항생제 투여 양이 기도치료를 받지 않는 그룹의 5분의 1에 불과했으며, 폐렴 등 합병증은 3분의 1에 불과했고, 기도삽관은 한 사람도 하지 않았으며,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도 치료가 가능한 것은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여 마음이 몸 밖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정신과 의사 푸트남(F. W. Putnam)은 다중 인격 장애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예전에는 ‘빙의’로 알려진 다중 인격 장애란 한 인격체에서 다른 인격체로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이

현대의학 실험결과 몸따로 맘따로

질병 치료 때 마음 다스리기도 중요

기로 하겠다. 다음은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대체의학 분야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내과 의사 버드(R. C. Byrd)는 중증 심장병 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하는 순서에 따라 기도치료를 하는 그룹(200명)과 기도치료를 하지 않는 그룹(200명)으로 나누고 심장병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이때 내과적 치료에 있어서는 기도 치료를 하는 그룹과 기도치료를 하지 않는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기도치료 그룹 환자들은 미국 전역의 신앙심이 돈독한 기독교인들로부터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받았다는 점이다.

때 인격뿐만 아니라 감정, 의식, 지능 지수, 외국어 구사력, 뇌파, 시력 등이 모두 바뀌고, 갖고 있는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다중 인격 장애가 가능한 것은 몸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현대 의학이 불교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부처님 가르침은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14

돈교는 반쪽(一分)의 가르침

화엄종 안에서 돈교 논쟁은 교설의 내용인가 아니면 교설의 방법인가 하는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가 그 쟁점이었다. 그러나 보조와 징관 사이의 논쟁은 돈교를 선(禪)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놓여 있다. 징관은 돈교를 바로 선이라고 본다. 그러나 보조는 징관의 입장을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 매우 강경하게 비판한다. 먼저 <원돈성불론>을 보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문에서 그 이치를 통달한 사람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룸’은 다만 한 쪽(一分) 성품의 깨끗한 바탕만 있을 뿐, 그 모양이나 작용은 갖추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것은 선문에 대한 비판적 색조가 담긴 질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분(一分)’이

란 용어는 ‘구분(具分)’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법의 성품(法性)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不變)과 인연을 따르는 성역(隨緣)의 의미가 함께 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 존재하면 반쪽(一分)이요 모두가 갖추어져 있으면 온쪽(具分)이 된다. 선문에서

이심전심의 성격 망각하면 안돼

말하는 성품이 오직 깨끗하기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법성의 불변적인 요소인 바탕(體)만 존재하지, 대상을 따르는 수연을 뜻하는 모양이나 작용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이 질문의 요지다.

주지하다시피 징관은 오교판에서 돈교를 ‘대승종교와 원교’ 사이에 배치한다. 대승종교는 불변하는 바탕의 체를 강조한

반면에 화엄원교는 수연의 연기적인 관점으로 작용을 수용한다. 만약 선문에서 말하는 ‘전성성품’과 ‘불림문자’가 오직 불변적인 요소만을 취한 것이라면, 결국 선은 대상에 대한 작용이 갖추어지지 못한 반쪽(一分)의 가르침으로서의 돈교가 아닌 것이라는 질문이다. 이점에 대해서 보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달마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으며 법이 곧 나의 마음임’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그런 까닭에, 문자를 세우지 않고(不立文字) 마음으로써 마음

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매번 비슷한 언어의 사용을 가지고 문득 돈교와 같다고 말한다. 이는 크게 그렇지 않다. 설사 화엄의 글이 없는 법계의 거듭 깊은 법문이라도 법에 대한 애착을 내어 이해의 한계를 잊지 못하면, 또한 깨뜨릴 대상이 된다.

여기서 보조는 교설로서 이성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선문의 연구(破執言句)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떠난다고 하는 돈교의 의미와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선의 중요한 관점은 언어나 생각을 끊는다는 돈교적인 성격도 있지만, 오히려 선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마음에 의해서 전한다’는 독자적인 방식에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정하는 기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설의 이치를 말없는 가운데 마음으로 전달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성격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점이 간과된다면, 선에 대한 이해는 성품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의 결과로서, 사물의 반쪽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조의 견해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Advertisement for children's books '고마 돌부처' and '석가모니' by Yearim and Nibook. Includes text: '아이를 부처님처럼! 가족과 함께 읽는 뜻 깊은 책!', '함께 사는 기쁨을 전하는 그림책 고마 돌부처', '만화로 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earim and Nibook.